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http://kschs.or.kr>

Vol. 5, No. 3, September 2017, pp. 953-962

DOI: <http://doi.org/10.15205/kschs.2017.09.30.953>

##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최성숙<sup>1</sup>, 이윤희<sup>2</sup>

<sup>1</sup>수성대학교 치위생과, <sup>2</sup>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Stress and Self-Esteem Related to Clinical Practices in Selected Dental Hygiene Departments

Sung-Suk choi<sup>1\*</sup>, Yun-Hui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seong College.

<sup>2</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Received August 10, 2017; Revised August 25, 2017; Accepted August 29, 2017)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levels of stress and self-esteem related to clinical practice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a group of 249 students from October to November 2015, in the Yeong-nam region.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d t-test, logistic regressions by a SPSS WIN 18.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appeared to practice managing teaching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tress levels of clinical practice( $p=.044$ ). As well. personal relations( $p=.013$ ),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p=.001$ ), levels of satisfaction of practice( $p=.019$ ) resulted in higher levels of self esteem. The stress levels of clinical practice and high levels of satisfaction of practice were reduced and resulted in a dental hygienic negative correlation( $p=.016$ ). Self-esteem levels increas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personal relations( $p=.001$ ) and satisfaction of practice( $p=.014$ ).

**Conclusion.** A strategy for development of a method to reduce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individuals and an improvement of self-esteem programs which is necessary for dental hygiene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Practices, Dental Hygiene Department, Stress, Self-Esteem

---

\*Corresponding author : [chsukdent@sc.ac.kr](mailto:chsukdent@sc.ac.kr)

## 1. 서 론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구강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졌다. 치과 의료기술의 많은 발전으로 인하여 치과 치료는 더욱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1965년 시작 된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 교육은 21세기에 대비한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sup>1)</sup>. 교육을 통해 양성 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기관 에서 예방처치 및 진료협조 업무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업무를 포함한 원무 관리를 수행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치위생 교육과정 또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지식에 대한 이론을 겸비할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숙련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sup>2)</sup>. 그러므로 치위생과 교과과정 중에 임상실습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환자를 직접 접해보는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서 전문치과위생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상실습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를 통해 구강진료환경에 적응하여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면에서 행위변화로의 구강보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역할 인식 및 원활한 치과진료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sup>3)</sup>. 따라서 임상을 통한 교육은 학생들의 요구 및 능력에 부합되는 임상실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대상자 중심의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능숙하고 세련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sup>4)</sup>.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임상실습 교육이 하나의 과학으로서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이 바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어 치과위생사로서의 자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sup>5)</sup>, 특히 이러한 임상실습을 보다 만족스럽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습장의 환경요인을 계획하고 수정·보완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sup>6)</sup>.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높은 이상과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임상실습에 임한 학생들은 낯선 환경과 직장 내 상사나 동료와의 대인관계, 환자들과의 문제들로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Oh<sup>7)</sup>는 임상실습 경험은 학과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고, Choi<sup>8)</sup>는 현장실습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실습 후 취업의지가 높았고 더 나아가 직업적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경험도는 임상실습에서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전공학문 및 자존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미래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반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sup>9)</sup>. 또한 자신감 형성을 위한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sup>10)</sup>.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 자신을 바람직스럽고 긍정적으로 여기며, 임상실습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증진시킬 수 있으며<sup>11)</sup>,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낮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sup>12)</sup>.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외 임상실습을 통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임상실습의 체계화 된 매뉴얼 개발 및 실습 담당 치과위생사 교육의 기회 마련으로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실시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영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치위생과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적어도 4주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케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한 258부 중 결측치가 있는 응답 자료 9부를 제외시킨 총 24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2. 연구방법

Whang<sup>13)</sup>에 의해 개발된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일부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상황특성, 개인 특성, 외부 조정 요인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Jeon<sup>14)</sup>이 개발한 도구를 일부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 • 용어의 정의

##### 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인으로서 상황으로 불안·공포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sup>13)</sup>.

Whang<sup>13)</sup>이 개발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계수는 .78이었다.

##### 2)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사람이고 지각하는 것으로<sup>10)</sup>,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1974년 Jeon<sup>14)</sup>이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계수는 .96이었다.

### 2.3.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18.0 Version을 이용하였다. 일반적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은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종교가 무교인 학생이 64.7%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대인관계에서는 '보통'이 53.8%, 본인의 성격이 외향과 내향의 중간으로 여기는 '보통'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51.8%, 실습만족도도 '보통'이 56.6%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 시 임상실습 지도자는 1년차 치과위생사 48.6%, 실습담당 치과위생 40.2%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 3.2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의 분석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3.61±.52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최소 1.58점, 최대 4.42점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위영역으로는 상황특성의 평균이 3.62±.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실습일지와 관련된 과제물인 외부조정요인 3.21±.80점이고, 개인특성은 2.98±.16점이었다. 상황특성 중에서는 의료인의 태도가 3.42±.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 상황, 실습 환경, 환자 및 보호자의 태도, 역할 갈등순이었다. 개인특성으로는 2.96±.76점이 가장 높았고, 심리적요인, 지식·기술적요인 순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N=249)

Characteristic	N	%	
Religion	Buddhism	33	13.3
	Christian	45	18.1
	Catholic	10	4.0
	Religionless	161	64.7
Personal relationships	Good	103	41.4
	Normal	134	53.8
	Bad	12	4.8
Personality	Extrovert	79	31.7
	Normal	127	51.0
	Introvert	43	17.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99	39.8
	Normal	129	51.8
	Dissatisfaction	21	8.4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84	33.7
	Normal	141	56.6
	Dissatisfaction	24	9.6
Clinical practice guide	Dentist	19	7.6
	Head of dental hygienist	9	3.6
	Practice of dental hygienist	100	40.2
	First year dental hygienist	121	48.6

Table 2. Clinical Practice Stress of Subjects (N=249)

Classification	M±SD	Min	Max	
Average score	3.61±.52	1.58	4.42	
Situation characteristics	3.62±.65	1.21	4.83	
Attitudes of medical personnel	3.42±.79	1.96	5.00	
Patient and caregiver attitude	2.81±.84	1.82	3.28	
Practice environment	2.88±.66	1.73	4.08	
Practice situation	3.02±.67	1.14	4.28	
Role conflict	2.74±.84	1.10	5.00	
Personal characteristics	2.98±.16	1.86	4.62	
Psychological factors	2.85±.72	1.13	3.98	
Knowledge and technological factors	2.64±.79	1.25	4.71	
Social factor	2.96±.76	1.36	4.90	
External adjustment factor	Assignment	3.21±.80	1.52	4.64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서 ‘나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p=.062) 2.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지도자에서는 부장치과위생사가 3.25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습담당치과위생사(2.98점), 1년차 치과위생사(2.84점), 치과의사(2.74점)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05)(Table 3).

Table 3.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9)

Classifica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M±SD	F	P
Religion	Buddhism	2.68±.50	.838	.474
	Christian	2.53±.66		
	Catholic	2.73±.58		
	Religionless	2.66±.52		
Personal relationship	Good	2.61±.53	.912	.062
	Normal	2.67±.56		
Personality	Bad	2.82±.48		
	Extrovert	2.98±.55	.108	.898
	Normal	2.64±.56		
Major Satisfaction	Introvert	2.86±.52		
	Satisfaction	2.69±.57	.532	.588
Practical Satisfaction	Normal	2.62±.52		
	Dissatisfaction	2.60±.59		
Clinice Practice Guide	Satisfaction	2.68±.51	.540	.584
	Normal	2.64±.56		
	Dissatisfaction	2.55±.59		
Clinice Practice Guide	Dentist	2.83±.64	2.733	.044
	Head of dental Hygienist	3.25±.01		
	Practice of dental Hygienist	2.98±.53		
	First year dental Hygienist	2.84±.48		

\*p&lt;.05, \*\*p&lt;.01, \*\*\*p&lt;.001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종교에서는 카톨릭이 2.85점으로 자아존중감이 문맥의 의미가 높았고, 대인관계에서는 ‘보통’이 2.86점(p<.05)으로 가장 높았다. 전공만족도에서도 ‘보통’이 2.77점(p<.001)으로 가장 높았고, 실습만족도 또한 ‘보통’이 2.87점(p<.05)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3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임상실습지도자는 부장치과위생사가 지도할 때 자아존중감이 2.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 3.5.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와 관련 요인에서 대인

관계가 좋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도 낮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다(B=-.882). 임상실습지도에서는 치과위생사에게 지도받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다(B=-.668)(Table 5).

### 3.6. 임상실습 시 자아존중감 관련 요인

임상실습 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요인은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B=1.991),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다(B=1.431)(Table 6).

Table 4.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9)

	Classification	Self-esteem		
		M±SD	F	P
Religion	Buddhism	2.78±.21	1.843	.140
	Christian	2.78±.21		
	Catholic	2.85±.33		
	Religionless	2.71±.29		
Personal relationship	Good	2.69±.28	5.824	.013
	Normal	2.86±.26		
Personality	Bad	2.16±.43	1.038	.356
	Extrovert	2.71±.22		
	Normal	2.76±.28		
	Introvert	2.73±.34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2.72±.23	7.418	.001
	Normal	2.77±.29		
	Dissatisfaction	2.66±.30		
Practical satisfaction	Satisfaction	2.62±.24	4.055	.019
	Normal	2.87±.28		
Clinice practice guide	Dissatisfaction	2.64±.30	.405	.749
	Dentist	2.74±.30		
	Head of dental hygienist	2.83±.43		
	Practice of dental hygienist	2.74±.22		
	First year dental hygienist	2.73±.29		

\*p<.05, \*\*p<.01, \*\*\*p<.001

Table 5. Related Factors of Stress in Clinical Practice (N=249)

Classification	B	$\beta$	F(t)	P
Religion	.282	.012	.038	.642
Personal relationship	-.882	-.125	-2.622	.068
Personality	.360	-.182	-.360	.682
Major satisfaction	.784	-.042	-.286	.788
Practice satisfaction	-.921	-.280	-1.984	.001
Clinical practice guide	-.668	.016	.265	.016

R<sup>2</sup>=.072, Adjusted R<sup>2</sup>= .058

\*p<.05, \*\*p<.01, \*\*\*p<.001

Table 6. Related Factors of Self-Esteem in Clinical Practice(N=249)

Classification	B	$\beta$	F(t)	P-value
Religion	.013	.001	.022	.982
Personal Relationship	1.991	-.230	-3.377	.001
Personality	-.593	-.064	-.950	.343
Major Satisfaction	-.390	-.018	-.270	.788
Practice Satisfaction	1.432	-.160	-2.470	.014
Clinical Practice Guide	.454	.028	.423	.672
Stress in Clinical Practice	-.005	-.030	-.466	.641

R<sup>2</sup>=.098, Adjusted R<sup>2</sup>= .070

\*p&lt;.05, \*\*p&lt;.01, \*\*\*p&lt;.001

#### 4. 총괄 및 고안

구강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치위생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치위생 교육과정 또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지식에 대한 이론을 겸비하고 임상에서 숙련된 치과위생사 역할과 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5)</sup>. 그리하여 임상실습 교육은 모든 교과의 통합체로서 학생이 습득한 지식을 보강 통합하도록 하여 지식, 기술, 태도 면에 행위 변화를 주어 후일 정규 치과위생사로 근무할 때 치과위생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것이다<sup>16)</sup>. 그러므로 임상실습 경험은 학생들의 지식을 근거로 수행할 수 있는 임상적응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추적 역할을 하며,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와 자부심 및 만족감을 갖고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나 대인관계의 경험부족,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안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며 전공에 대한 부적합성을 형성하게 된다<sup>17)</sup>.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위영역

으로는 상황특성, 실습일지와 관련된 과제물인 외부조정요인, 개인특성 순이었다. Whang<sup>13)</sup>은 간호학생에게서는 스트레스 순위가 외부 조정요인인 과제물에서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과제물 작성 및 발표준비 및 평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Yang<sup>18)</sup>의 결과와 유사하게 인간관계의 부담감인 상황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인의 태도가 가장 높았다. 이것은 진료실에서 대인관계 시 전문 지식의 부족함에서 겪는 열등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임상실습 시 학생들의 분명한 역할인식 뿐만 아니라 임상지도자들에게도 실습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실습지도자인데 Whang<sup>19)</sup>은 간호사에게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실습지도자는 간호사 그룹이라고 할 만큼, 임상실습에 있어서는 같은 직종 그룹의 실습 담당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지도 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부장 치과위생사에게 받았고, 실습 전담 치과위생사, 1년차 치과위생사순이었는데, 1년차 치과위생사에게서 받은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은 근무 경력이 작은 1년차 치과위생사는 경험상의 차이가 적어 교육 및 지시 할 사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며, 부장 및 실습 담당 치과위생사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전담해야 하고, 학생들과의 마찰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Choi<sup>15)</sup>은 실습 시 실습전담 치과위생사가 실습 지도에 대

한 전문성과 교육시스템을 체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의 교육과정 및 공통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며, 실습 전담 치과위생사들의 교류 및 체계화 된 교육의 기회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었는데 특히 실습만족도는 향후 직업만족도와 서로 연관이 있어 임상실습 시 실습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전에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원활한 임상실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sup>17)</sup>.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와 관련 요인은 실습만족도, 임상실습지도자로 Yang<sup>18)</sup>은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긍정적인 임상실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장교육의 실태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인 임상실습은 졸업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근무하게 될 현장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통합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실제의 현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있을 때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받아 보완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sup>2)</sup>. 그러므로 임상실습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다면적이고 상호 관련되어 나타나므로 대상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학생의 임상 실습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실습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sup>6)</sup>. 반면에 Jang<sup>20)</sup>은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반응의 상관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상태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양상은 낮아진다고 하였고, Kim<sup>21)</sup>은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하였고, Son<sup>22)</sup>등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간호대학생들의 사후지식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시 자아존중감과 관련 요인에서 대인관계, 실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Yang<sup>18)</sup>의 연구결과에

서도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수록 높다고 하였다. ,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들도 자아존중감이 증진된다면 임상실습과 치위생학 전공에 만족도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동의 경우 주어진 과업에 따라 아동기에 성공경험을 많이 하면 자존감과 유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sup>23)</sup>. 즉 학생신분으로서의 임상실습의 성공적 성취를 유도할 수 있는 실습학생의 실습범주를 확인 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과 임상실습 지도자 및 기타 의료인들이 긍정적으로 실습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 계기마련도 다소 필요할 것이며, 치위생 교육기관은 임상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인 실습지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에서의 스트레스 감소 및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교육과정 개발 시 보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 직무 중심의 교육 과정 시 매우 중요한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스트레스 정도를 줄이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실습시의 필요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임상실습 사전교육과 대인관계 등의 문제점 완화를 위한 인성교육과 실습 모델링, 긍정적인 피드백의 실습매뉴얼 개발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수 있는 실습환경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실습지역이 다소 한곳으로 치우쳐져 있고, 임상실습을 마친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임상실습 종료 후 학교교육의 보완에 따른 부분이 반영되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양한 연구 분석 및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 5. 결 론

본 연구는 영남지역에 소재하는 치위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상실습에 관한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구조화 된 설문지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여 최종 249명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지도자에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장치과위생사가 가장 높았고, 실습담당치과위생사, 1년차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순이었다 ( $p=.044$ ).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p=.013$ ), 전공만족도( $p=.001$ ), 실습만족도( $p=.019$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와 관련 요인에서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도 낮게 나타났고( $p=.001$ ), 임상실습지도에서는 치과위생사에게 지도 될수록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의한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p=.016$ ).

넷째, 임상실습 시 자아존중감과 관련 요인은 대인관계( $p=.001$ ), 실습만족도( $p=.014$ )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교육과정의 임상실습 시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실습담당 치과위생사에게 받는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학생들의 실습 범위 및 역할 정립의 실습 매뉴얼 개발과, 치위생과의 관련 교육기관을 통해 임상실습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마련도 필요하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있어 전공만족도 및 실습만족도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학기의 안배 및 임상실습 사전 교육의 질,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및 직업윤리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1. Butters JM, Vaught RL. The effect of an extram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perceived clinical compet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Edu* 1993;63(5):415-420.
2. Park MY.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 of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2006;6(4): 243-249.
3. Yang JS.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ospital by dental hygiene students. *JKAOH* 2000;24(3):205-213.
4. Lee YA. A Study on the Stressors Experienced during Clinical training of Dental Hygiene Students. *Dental Research* 1996;40(6):81-94.
5. Park LS, Lee SH.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 Duties.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2007;7(4):295-302.
6. Hwang SH. A study on the Stressors Experienced during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05.
7. Oh HS. Study on the teaching efficiency and satisfaction levels of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during clinical practice training for some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2013;13(5):777-786.
8. Choi GH. Analysis of Employment Tendencie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of Field(Clinical) Practice among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Optic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6;4(4):671-679.
9. Go SJ, Kang SS, Kim CS, Choi SY, Kim JY. Study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y Students in Department of Radiologic Science. *Korean Society of Radiological Science*. 2011;34:287-296.
10.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1. Lee SY. Effects of Learning Motive Enhancing Program on Academic Self Efficacy, Learning Habits, and Self Esteem in Underachiev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1):5-12.
12. Park YS, Bae YJ, Jung SY.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2;11(4):621-631.
  13. Whang SJ.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s and Verification of Tools Clinical Stress of Nursing Students 2002;14(1):35-54.
  14. Je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Publishing House 1974;11:107-124.
  15. Choi OS, AHN GS, KIM YJ.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Clinical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n Performan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2015;15(2):182-189.
  16. Park JR. Characteristics of Juni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and Their Attitude on Clinical Trai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992.
  17. Lee JH. A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Stress Coping Method of Nursing Student The Korean Central Journal of Medicine 1993;58:446-451.
  18. Yang JJ. A Study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Assertiveness, Clinical Stress and Nursing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Gwangju Health College Thesis 2000;25:393-417.
  19.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06;12(2):205-213.
  20. Jang E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responses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21. Kim EH. A Study on the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in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6;4(4):720-729.
  22. Son YL, Park PN, Ko SH. The Effects of Preclinical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n Knowledge, Nursing Students Confidence in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7;5(2):850-863.
  23. Jang HS, JUNG SY. The Effects of Laughing Programs on Elementary Students Anxiety and Self-esteem. The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015;16(2):101-114.